

푸틴, 크림대교 붕괴는 '모욕' 무자비하고 집요한 보복 우려

보급로 끊긴 러시아군 타격

러시아 전쟁 비용·시간 대안 없어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 커져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8일(현지시간) 폭발로 일부 붕괴하며 러시아군의 고질적 문제였던 보급 차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비용, 시간, 안전에서 크림대교와 비교할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다른 점령지에 군사물자를 조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안전한 후방의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군은 크림대교의 사용이 일단 제한됨에 따라 남동부 점령지에 있는 육로를 통해 본토에서 물자를 실어나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에서 크림반도보다 가깝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포대

의 사거리 안에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 모욕으로 여기고 있으며 집요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질 도허티 기자는 9일(현지시간) CNN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코너에 실린 분석기사에서 이와 같이 전망했다.

CNN은 크림대교 축이 크림대교 공격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러시아의 위신과 푸틴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약 40억 달러(5조6620억 원)를 들여 만든 크림대교는 푸틴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으며, '어머니 러시아'(러시아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표현)와 우크라이나를 결합하는 상징적 '결혼 반지'라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리기 직전인 올해 2월 21일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며 우리 역사, 문화, 정신세계의 양도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푸틴 집권 기간 중 그의 속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연설 중 하나로 이 연설을 꼽으면서 "우

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이번 동족상잔(형제살해) 전쟁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표트르 대제(1682~1725)에 심취해 있다며 몇가지 예를 들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6월 푸틴이 자신이 벌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을 상대로 21년간 벌인 북방전쟁(1700~1721)에 비교한 일이다. 푸틴은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으로부터 땅을 뺏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지금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되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사적 운명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그는 크림대교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푸틴) 개인을 겨냥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이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푸틴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어도 있다는 게 서방 지도자들의 경고다. 또 푸틴이 '비대칭적 보복'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목표물에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지난 8일(현지 시각)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철도교를 지나던 연료 수송 열차가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 대리는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지역에 식량과 연료,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서 과적한 배 뒤집혀 76명 사망

10년만의 최악 홍수 증 참가까지

나이지리아에서 배가 전복돼 최소 76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7일 남동부 아남브라주(州)에서 과적한 선박이 뒤집혀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하리 대통령실은 "아남브라주 오그바루 지역에서 홍수로 물이 불어남에 따라 85명을 태운 선박이 전복됐다"며 "긴급 구조대는 지금까지 사망자 76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부하리 대통령이 현재 구조 물품

조달 등과 관련한 구조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적, 과속, 관리부실, 교통규칙 위반 등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올해 우기가 시작되면서 나이지리아의 많은 지역은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악의 홍수로 나이지리아 당국에 따르면 300명이 넘게 숨지고 10만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나이지리아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 홍수로 농장 수천개, 작물이 홍수에 쓸려가면서 식량부족, 굶주림에 대한 우려까지 촉발됐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폭우 최소 25명 죽고 52명 실종

8시간 동안 한달치 비 내리

베네수엘라 중부의 강 5개가 홍수로 범람하며 산사태 등으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52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델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전날 밤 내린 폭우로 강이 범람하며 수도 카라카스에서 남서쪽으로 67km 떨어진 테헤리아스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테헤리아스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불과 8시간 만에 한 달 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너무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주민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운전사 아르만도 에스칼로나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가족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물이 들이닥쳐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시설, 농지 등 시설물 피해도 컸다고 밝혔다.

그는 식수 공급을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마저 물에 떠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목격자 증언을 인용해 약 7만3천 명이 거주하는 테헤리아스의 거리가 나무, 진흙, 바위 등으로 엉망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범람한 강 중 하나인 엘 파토 강이 범람해 이 지역 내 집 여러 채와 상점, 도축장을 모두 휩쓸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테헤리아스를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도 "우리는 아이들을 잃었다"며 "테헤리아스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이라고 애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 1천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강둑, 진흙, 바위 밑 등을 중심으로 생존자를 수색 중이다.

로이터는 최근 몇 주간 베네수엘라에서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로 숨진 사람이 최소 4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태국 어린이집 내부 촬영 CNN 비자 취소

취재진, 벌금 내고 출국

CNN "고통 유발해 유감" 사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전직 경찰의 습격으로 2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해 논란을 빚은 CNN 취재진의 비자를 취소했다.

10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과 이민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농부아랍푸주 나갈랑 지역의 어린이집에 들어간 CNN 취재진 2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비자를 취소했다.

이민국은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태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비자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일 방콕에 도착한 호주 국적의 기자와 영국 국적의 카메라맨 등 CNN 취재진 2명은 각각 5

천บาท(19만원)의 벌금을 내고 출국하기로 했다.

경찰은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취재진은 어린이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관계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내부에 들어갔다. 들어본내 사람에게는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수라쨋 하크판 부청장은 "두 사람이 어린이집 내부 촬영을 마쳤을 때는 출입이 차단돼 있어 담을 넘어 나왔다"며 "국유 재산에 무단 침입하거나 범죄 증거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의도치 않게 저지른 일에 대해 태국인들에게 사과했으며 추방당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도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보도 영상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3연임 무대'... 中 공산당 7중대회 개막

당 대회서 통과될 당헌 개정안 토론회

'시진핑 대관식'을 최종적으로 준비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7중대회)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7중전회가 9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8월 30일 제20

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가 10월 16일 개막하고, 그에 앞서 10월 9일부터 19기 7중전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약 170명이 모여 비공개로 개최하는 7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20차 당 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이날 당 대회 개막식에서 19기 중앙위원을 대표해 발표할 업무보고 초안을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또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중국공산당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 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지난 5년간 당의 성취를 정리하고 현재의 정세와 당의 임무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한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TEL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